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 동해안권 균형성장 본격화

포항~영덕 운행거리, 6km 단축
국도 7호선 교통량 분산효과 기대
주요 관광지 등 고속도로망 연결

경북도는 포항시 흥해읍 곡강리에서 영덕군 강구면 상직리를 잇는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2016년 착공 이후 9년 만에 개통됨에 따라 동해안권 균형성장의 새로운 축이 열리고, 본격적인 동해안 고속도로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식은 지난 7일 오후 2시 포항휴게소에서 열렸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김광영 영덕군수, 경북도의회 부의장 및 지역 도의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다. 정식 개통은 8일 오전 10시부터 이루어 졌다..

이번에 개통한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총연장 30.92km, 왕복 4차로로 조성됐으며, 총사업비 1조 6000억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됐다. 구간 내에는 터널 14개소와 교량 37개소, 분기점 1개소(영덕), 나들목 3개소(영일만·북포항·



지난 7일 포항휴게소에서 열린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식’.

/경북도

남영덕)가 설치됐고, 편의시설로는 포항~영덕 휴게소와 졸음쉼터 4개소가 마련됐다.

경북도는 이번 개통으로 포항과 영덕 간 운행거리가 기존 37km에서 31km로 6km 단축되고, 주행시간은 42분에서 19분으로 23분 줄어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상습 정체로 불편을 겪던 국도 7호선의 교통량 분산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동해안 주요 관광지인 강구항, 장사해수욕장, 영일대해수욕장과 포항·영일만항·블루밸리 국가산단 등 산업·물류 거점이 고속도로망으로 연

결되면서 동해안권 물류와 산업, 관광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통으로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10축(부산~포항~고성, 433km) 중미연결 구간은 영일만 횡단(18km), 영덕~삼척(117.9km), 속초~고성(43.5km)만 남게 됐다.

특히 국가 계획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영덕~삼척 구간에 대해 경북도는 연말 고시 예정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되도록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적극 건의 중이다.

또 경북도는 이번 개통에 맞춰 국도7호선(청하교차로)에서 북포항나들목까지 국가지원지방도 20호선 700m 구간

을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개통했다. 이는 ‘상원~청하 간 도로건설공사’의 일부 구간으로, 애초 2029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조기 개통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은 동해안권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라며 “포항과 영덕 등 해양관광 축을 하나로 연결해 관광권 확장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해안 고속도로의 마지막 퍼즐인 영덕~삼척, 영일만 횡단구간도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전남도, 어촌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어촌신활력증진사업 9개소 선정
국비 629억… 각 최대 100억 투입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의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전국 34개소 중 9개소가 선정돼 898억원(국비 62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선정 규모의 약 26%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남도의 해양정책 추진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다.

선정 사업지는 여수도포항, 순천대대항, 고흥 남열항, 강진 수인항, 해남 학가항, 무안 도원항, 영광 월곡항, 완도 금일관문권역, 신안 상대도항 등 총 9개소다.

각 지역에는 최대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어촌의 열악한 생활·안전 인프라와 생활서비스 확충을 통해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남에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5개소가 해당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3241억원을 유치했다. 이번 9개소를 포함,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가 매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는 사업계획 수립 초기부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 수요에 맞춘 전략을 펼친 때문이란 분석이다.

박영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선정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나후된 어촌의 생활·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열악한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전남 어촌지역 활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부산시, ‘공원녹지법’ 개정 기념 시민행사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노력

부산시는 지난 8일 오후 3시 을숙도 문화회관 잔디광장에서 공원녹지법 개정을 기념하는 시민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낙동강 하구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앞두고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이성권 국회의원, 이갑준 사하구청장, 채창섭 사하구의회 의장, 전원석 시의원을 비롯해 범시민추진본부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법령 개정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국가도시공원 정책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뜻을 모았다.

부산시는 그동안 낙동강 하구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국회에 법령 개정을 요청해 왔으며 지난 8월 26일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실을 맺었다.

내년 8월 법령이 시행되면 지정 기준 면적이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대폭 낮아지고, 지정 절차도 국무회의 심의에서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바뀌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을숙도는 예전에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 처리장이었으나, 2000년대 생태계 복원 사업을 거쳐 지금은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 변모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대구시, 내년 예산안 11조7078억 편성

올해보다 7831억 늘어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7831억원(7.2%) 증가한 11조707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대구시예산안은 지방세 감소와 경직성 경비 급증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투자사업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민생안정 및 복지·미래 성장동력·시민 안전 등 3대 핵심 분야에 가용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내년에는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로 지방세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올해보다 11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체 지방세 수입도 올해 대비 410억원 줄어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복지·교통·교육 등 경직성 경비는 급증해 내년도 전체 예산의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재정 자율성과 운용 여력이 크게 제약받는 구조적 어려움이 이어지자 도로 건설 등 일부 사업 추진 시기 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저성과 사업 비용 감액 또는 폐지, 업무 추진비 등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포항시, ‘수산업 발전 교류화합대회’ 성료

어업인 활력, 수산업 미래방향 모색

포항시는 지난 7일 구룡포 아라광장에서 ‘2025 수산업 발전 교류화합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희망의 100년 향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수산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어업인과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개회식과 유공자 포상, 어업인 기(氣) 살리기 퍼포먼스, 마을 장기자랑,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특히 수십 년간 바다를 지켜온 원로 해녀, 선장, 선원 등 18명이 수산업 발



지난 7일 구룡포 아라광장에서 열린 ‘2025 수산업 발전 교류화합대회’. /포항시

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고, 프로야구 선수 시절의 열정과 투지를 지역 어업 상생 활동으로 이어온 야구선수 양준혁이 특별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국립수산물학원 권유정 연구관이 ‘동해안 어업 환경 변화 및 미래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지역 수산업의 발전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지역 이모저모

영양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 준공식

영양군은 지난 7일 입암면 신구리에서 영양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도창 영양군수를 비롯한 김영범 영양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 운영기관인 남영양농협조합장 및 지역 농업 관련 단체장, 신구리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된 농업 근로자 기숙사는 연면적 1396㎡, 지상 3층 규모로 총 18호실에 65명이 생활할 수 있다. 또한 공용사위실 및 세탁실, 공동주방, 다목적실 등 근로 편의시설을 갖췄으며, 총사업비 50억원이 투입됐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청송군

지역 미혼청년 만남·교류 행사

청송군은 오는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지역 미혼 청년들의 만남과 교류를 위한 행사 ‘인연정원’을 청송군 일원에서 개최한다.

사과 쿠키부터 주산지 데이트까지, 자연과 예술 속에서 소통과 교류가 어우러지는 이색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청송의 문화자원을 배경으로, 청춘 남녀들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장으로 기획됐다. 지역 내 결혼 적령기 청년층의 만남 기회를 넓히고, 청송의 정주 여건을 보다 긍정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도 담겨 있다.

/청송(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경남도교육청

오늘부터 수능 종합상황실 가동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10일부터 수능 종합상황실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시험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10일 오후 1시 강당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도내 7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도 상황실을 구축해 시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시험장 설치부터 교통 관리까지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수험생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관공서와 공공기관, 50인 이상 사업체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해 달라는 협조도 요청했다.

/경남=이도식 기자

사천시

‘조훈현-이창호’ 바둑대결

사천시는 ‘2025 사천방문의 해’를 기념해 한국 바둑계의 전설인 조훈현 9단과 이창호 9단의 스페셜 매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이번 대국은 오는 16~17일 이틀간 진행된다.

16일 오후 4시에는 사천시립도서관 대강당에서 미디어 데이와 팬사인회가 열린다. 17일에는 항공우주체험관에서 단판 승부 형식의 스페셜 매치가 비공개로 활용되며 바둑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1월 중 방송된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